

# “전남형 기본소득제 지원 형평성 대책없나”

### 도의회 도정질의서 재원대책 마련 등 문제점 지적 나주 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주관 기관 놓고 ‘핑퐁게임’

김영록 전남지사의 핵심공약인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전남도의회에서 재원 마련 대책과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다. 또 지역갈등이 심각한 나주 고흥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주체와 관련, 전남도는 여전히 한 발을 뺐다.

22일 전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남도가 도입을 검토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과 구직 중인 청년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수당·연금 등과 연계해 놓은 등 취약계층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금 대상을 구직 중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으로 제한한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상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농민수당·청년수당으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쉬운 접근이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나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농민수당만 해도 연간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도민 모두를 기본소득제로 돕고 싶지만 예산 형편이 있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주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핑퐁게임’이 벌어졌다.

최명수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전남도가 주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안을 내놓으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전남도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고 사업 추진에 전남도가 관여했다. 도지사 공백기에 도청이 아예 일을 안 하면서 나주시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따졌다. 이어 “소극적 대처로 지금의 갈등을 제공한 전남도가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도리”라며 “전남도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전남도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열병합발전소 갈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며 공론화도 전남도에 떠넘긴 것”이라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 기

관 어느 곳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전남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내놓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확인하고 싶었던 최 의원은 김 지사의 답변에서 기존과 달라진 태도를 찾지 못하자 질의 이중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최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받아 치면서, 오전 오후 내내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던 도정질문은 한동안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제 326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대상’ 수상

김영록 전남지사가 ‘2018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열린 제8회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국민대상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201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혁신 성장산업 육성, 전남 관광객 6000만 명 유치 기반 조성,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 구축, 지역 핵심 SOC 확충과 신성장 거점 육성 등을 추진해왔다.

또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도정과



소통하는 혁신도정 실천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군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민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민박형 현장감담회’를 실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수상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호적으로 평가해준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수시로 살피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 행복시대’, ‘옴nip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제공모

### 1차 공모 결과 적격자 없어

전남도가 전남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제공모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차 공모를 접수해 심사해 대표이사 후보로 2명을 추천했으나, 재단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정부 공모사업 등을 감안해 중앙 인맥 등이 탄탄한 인물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특정 정치인 인맥이나 캠프인사 의혹 제기에 부담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주 중 대표이사 제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하락 제한은 없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업무 성격상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흐트러진 조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리더십도 요구된다”면서 “재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사를 모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사무처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상향 전환하고 첫 공모에 나섰다. 공모에는 10명이 지원해 이 중 2명을 김 지사에게 복수 추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산구의회, 지역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지역 내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안 모색에 나섰다.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민)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19일 제 241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 심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만성적 적자로 위태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5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광산구 유스호스텔을 현장 방문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설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향후 세부적인 운영방향과 조속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

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조영민 위원장은 “광산구 유스호스텔은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조속히 활용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며 “현장활동 사항을 안전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역 내 주요 기관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구 유스호스텔은 1996년 광산구 송학동 일대 6,926㎡ 부지에 건물 2개 동 규모로 건립됐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뷰티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 내일 용역업체 선정 계약

광주시가 뷰티산업을 지원·육성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2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24일 업체 선정과 함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 업체는 4개월간 2019~2023년 광주 뷰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광주 뷰티산업 여건 및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 추진 과제 발굴 및 단계별 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등 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뷰티산업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점을 활용,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뷰티산업 관련 광주 미용업소(머리, 피부·손톱 관리, 화장)는 올해 9월 기준 4093개소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발전 토대도 풍부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시교육청 세계수영대회 협력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지원 등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 특별회계 법정 전입금 세출예산 확대 ▲ 무상 의무급식비 지원 확대 ▲ 광주 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지원 ▲ 4차산업 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 지원 ▲ 광주예술고 부지 내 다목적 공연연습장 등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내년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으로 수영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제안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광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초·중·고 전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에서 초·중·고교와 고2~3학년 식품비 70%를 지원하고 고1 학생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또 시의 요청에 따라 내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학생들이 국제 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 문화를 향유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학생 문화예술센터,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다목적 공연연습장 건립 등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70~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1억2천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정직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